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박지수* · 김덕호**

|| 차례 ||

- I. 머리말
- II. 음운 변화
- III. 어휘 변화
- IV. 문법 요소의 변화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북 서북부에 위치한 상주 지역의 언어지리적 환경에 따른 언어변화 현상을 고찰한 것이다. 경북 상주시는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 일대와 접경을 이루며 그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소백산맥과 접해 있고, 낙동강 물줄기와 철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느 지역보다도 방언과 지역 문화가 주변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주의 1980년대 음운, 어휘, 문법 요소에 걸친 특징을 2000년대에 실시된 방언 조사 결과와 대비하여 언어변화의 형태를 살펴면서 20년간에 이루어진 언어변화 과정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상주 지역은 몇몇 경북 지역과 충북 지역과 인접한 지리적인 환경으로 말미암아 개신파들이 전파되면서 언어 접촉이 발생되었다. 이 같은 언어 접촉 현상은 1980년대의 상주 지역과 접경한 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선산), 김천(금릉)과 충북 괴산, 보은, 옥천 지역의 방언형이 2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상주 방언에서 방언 변화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주 지역에서 나타난 언어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변화를 관찰

* 주저자: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는 실재시간(real time)연구 방법에 입각한 언어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주제어 : 상주 방언, 언어 변화, 실재시간, 음운 변화, 어휘 변화, 문법요소의 변화.

I . 머리말

본 연구는 경상북도 서북부권에 속하는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20여 년간의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언어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를 확인하고, 인접지역과의 언어접촉 과정에서 언어 개신파의 흐름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라보브(Labov 1994)와 트럿길(Trudgill 1998)은 인접한 지역에서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호 접촉에 의해 언어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언어 확산 이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언어 확산 이론은 궁극적으로 개신파(innovation wave)의 이동으로 본다. 이러한 언어 확산 이론을 토대로 볼 때, 경북의 서북부 지역인 상주와 인접해 있는 몇몇 경북 지역과 충북 지역이 서로 영향 관계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을 라보브나 트럿길의 주장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언어 접촉에 의해 어느 한 쪽의 개신파가 다른 한 쪽으로 이동하면서 ‘언어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접촉 현상은 1980년대의 상주 지역과 접경한 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선산), 김천(금릉)과 충북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방언형이 20여 년이 지난 2000년대에 상주 방언과 어떤 영향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본 연구의 발단이 되었다.

천시권(1965)은 의문형종결어미를 중심으로 경북을 3개의 방언 구역으

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제3방언 구역 ‘-여’형 지구는 상주, 구미(선산), 김천, 문경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¹⁾ 김덕호(1985)는 경북 서북부에 위치한 상주 지역이 영남방언권과 중부방언권의 접경지역으로 전이지역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곳임을 규명한 바 있다. 또한 김택규(1985)가 제시한 ‘한국기층문화영역권’에 입각하면 추석문화권과 추석단오복합문화권의 경계를 이루는 문화적인 접경지역이 바로 상주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언어적인 접촉 과정을 살피는 일은 문화적인 접촉 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의의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접경지역인 상주 지역은 중부 지역과 언어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통로 지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언어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²⁾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북 상주 방언의 1980년대 조사 자료와 2000년대 조사 자료를 대비하여 방언의 변화된 형태를 분석하면서 경북 서북부 지역 일대의 언어변화 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주 지역의 언어 사용 양상에 대한 통시적인 언어변화 과정을 경북의 지역적 특성에 비추어 조망하고자 한다.

1) 천시권(1965)에 의하면 제1방언 구역은 ‘-능교 형’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대구, 경주, 달성,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군위, 영천, 월성, 영일, 포항, 청송, 영덕이고, 제2방언 구역은 ‘-니껴 형’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안동, 예천, 의성, 봉화, 영양, 영주, 울진과 청송 일부라고 구획한 바 있다.

2) 방언은 규범적이고 획일적인 표준어와는 달리 음운, 어휘, 문법에서 차이를 보이며, 또 지리·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분화된 방언연속체(dialect continuum)가 있다. 이처럼 방언의 접촉과 고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독립성과 의존성은 순수하게 언어학적 요인이기보다는 정치·사회·문화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상규, 2004).

1. 지역 개관

1) 상주의 역사

상주시는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함창군 일원이 상주군에 편입되고, 18개 면을 관할하는 상주군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31년 상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³⁾ 이 구획이 그대로 광복 후까지 내려오다가 1986년 1월 상주읍이 상주시가 되면서 상주군에서 분리되었는데, 1998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1읍 17면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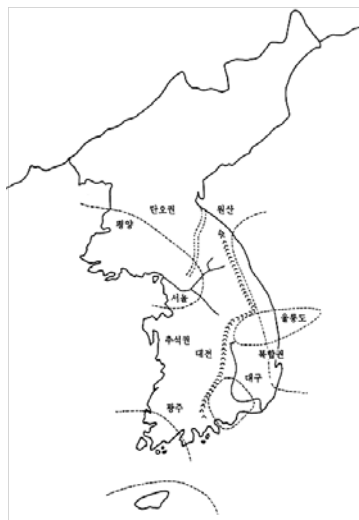
상주의 지리적 위치는 동쪽으로 경북 예천군과 의성군, 구미시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충북 보은군, 옥천군이, 남쪽으로는 경북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으로는 경북 문경시와 충북 괴산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서쪽은 소백산맥과 접하고 동쪽으로는 낙동강 본류가 관통하여 산과 물, 그리고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서고동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어서 낙동강에 합류하는 동부 지역에는 넓고 비옥한 들판이 있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산간분지이면서도 곡창지대로 유명한 지역이다. 1924년 개통된 경북선 철도가 경부선과 중앙선 및 영동선과 연결되고, 경북 일대와 충북 지역을 잇는 국도가 상주에서 교차된다. 따라서 상주권은 문화의 중심과 전통을 잇는 지역이라는 점과 안동권 지역(예천, 의성)과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 이래 많은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이처럼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이어진 언어문화적 요소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경북의 중요한 방언 지역이다.

3)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3804&cid=46618&categoryId=46618>

2) 언어적·문화적 접경지역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상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남쪽으로 경북 예천군, 의성군, 구미시 등과 접해있고, 서쪽으로 인접한 충북 보은군은 소백산맥의 높은 준령과 노령산맥의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지리방언적인 관점으로 중부 방언과 동남 방언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도 1] 김택규(1985:453)의
‘한국기층문화영역도’

이에 따른 상주의 접경지역(contact area, transition area)⁴⁾에 대한 연구로 이승녕(1967), 최학근(1967), 김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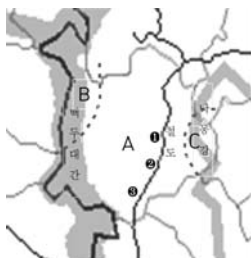
호(1985)는 경북 서북부 지역의 경북 상주군 화동·화서·모동·모서면 지역 일부를 중부 방언의 접경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중부 방언과 남부 방언이 교차하는 지역인 경북·충북 접경지역 일대의 방언형의 형태와 경년적 변천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경북 상주 지역은 경상북도의 문경군, 예천군, 의성군, 선산군 등과 충청북도의 보은군, 괴산군, 옥천군, 영동군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상주의 일부 지역은 전이지역(transition area)적인 방언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이지역의 언어분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안은 방언형의

4) 이상규(1999:219)에서는 ‘접경지역’을 인접하는 양 방언이 접촉하는 지역에서 전이지역이 흔히 발견되는데, 이를 접경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접경지역 또는 전이지역이란 두 개 이상의 개신형이 침투하는 지역으로 상이한 규칙이 공존하는 지대를 의미한다.

통시적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으므로, 조어 양상이 방언분화와 추이와 전파 경로에 따라 파악·분석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과 충북의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언의 전파 현상으로 언어 추이의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택규(1985:453)가 한반도의 문화영역을 분화하여 해석한 ‘한국기층문화영역도’에 따르면 추석권⁵⁾과 추석단오복합권⁶⁾의 문화적인 접경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언어적인 접촉 과정을 살피는 일은 문화적인 접촉 현상을 고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연구의 의의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

2. 조사 지역과 제보자



[지도 2] 조사지점(상주)
지리적 환경

방언 전파와 관련된 언어 지역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볼 경우, 상주 방언의 초점 지역(focal area)은 [지도 2]의 A지역이고, 전이 지역(transition area)은 B지역, 잔재 지역(relic area)은 C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C지역의 중동면 지역은 낙동강의 동쪽으로 강으로 인해 초점 지역의 방언형 유입이 차단되면서, 오히려 인접

한 의성, 예천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지역으로 판단된다.

전인득(1979:6)은 상주 지역의 경우 적어도 3개 지역으로 소방언권이 하위 분류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의 [지도 2]에서

5) 남한강 이남, 속리산 가야산제, 지리산제를 거쳐 남행하는 소백산맥 이서의 한반도 남서북이다. (김택규, 1985:445-470)

6) 단오권(태백산맥~속리산을 잇는 소백산맥과 남한강의 흐름을 따라 동서로 그을 수 있는 선의 이북 지역), 추석권을 제외한 동남부 지역이다. (김택규, 1985:445-470)

A지역은 상주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상주 방언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고, B지역은 화북면과 모서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충청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이 지역으로 보고 있다.⁷⁾ C지역은 중동면 지역으로 낙동강의 동안에 해당되면 인접한 의성이나 예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의 전이 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조사대상지였던 ①, ②지점과 2000년대 조사대상지였던 ③지점은 동일한 상주 방언으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표 1〉 조사 시기와 제보자

시기	번호	행정 지번	제보자(나이/직업/대)	조사 일자	조사 주체
1980년대	①	상주읍 만산	박은식(62/농업/10대)	1982년 1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이상규)
	②	청리면 원장	이자승(69/농업/3대) 이정태(68/농업/3대)	1985년 1월	김덕호
2000년대	③	공성면 봉산	나상득(76/농업/6대) 김명월(74/농업/3대)	2005년 1월	국립국어원 (이상규)

그 외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방언 조사 자료는 1980년대에 발간된 『한국방언자료집』중 경상북도⁸⁾와 충청북도편⁹⁾을 활용한다. 또한 2000년대 자료는 2005년에 조사된 국립국어원의 방언 자료를 활용한다. 이러한 두 시기의 자료를 토대로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방언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경년 조사 자료를 1대 1로 비교하기에는 20년간의 시간 차이로 인해 제보자나 세부 조사 지역의 불일치 등의

7) 김덕호(1986)에 의해 화북면과 모서면이 충북 방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전이지대임이 증명된 바 있다.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VII - 경상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III - 충청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보자들의 성별이나 직업,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변인들을 배제하고, 지리언어학적 관점만으로 20년의 경년적 시차 간의 언어 추이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의 이론적 근거는 라보브(Labov 1972, 1994)와 챔버와 트릿길(Chambers&Trudgill 1998)이 제시한 ‘인접지역의 영향(neighbourhood effect)’과 ‘언어의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¹⁰⁾의 개념이다. 본고를 기술하는데 방언의 전파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방언 전파에서 개신파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상지역의 주요 방언형이 나가는 경우를 방사(放射)라고 할 수 있고, 대상지역으로 인접 방언형이 들어오는 경우를 유입(流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언형이 어떤 요인에 의해 새롭게 변신을 하는 경우를 방언(方言)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젊은 세대에 의해 새롭게 변신하는 방언형을 경우에 따라 신방언(新方言), 네오방언(neo-dialect), 코이네(koiné)라고 부르기도 한다.¹¹⁾

언어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연구법을 제시한다. 즉, ‘현장시간(apparent time)’ 연구법과 ‘실제시간(real time)’ 연구법이 있다. 첫째, ‘현장시간(apparent time)’ 연구법은 특정 언어 공동체

10) 김경숙(2014:1-3)에서 언어의 공간적 확산을 지리언어학적 관점과 사회방언학적 관점에서 해당 현상을 고찰한 바 있다.

11) ‘신방언’은 이노우에 후미오(井上史雄: 1998)가 젊은 세대에서 주로 친구들끼리 사용되는 비표준어형으로 말하는 방언이라고 했다. ‘네오방언’은 사나다 신지(眞田信治: 1987)가 제안한, 새로운 방언형에 대한 명칭이다. 코이네(koiné)는 복수의 방언이 접축하여 해당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공통어를 말한다. (김덕호, 2015:79-86)

에서 상이한 연령 집단이 보이는 언어 행위의 차이를 언어변화의 결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조사 방법은 20년 동안의 언어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60세의 제보자와 40세의 제보자를 조사하여 나타나는 언어적 차이가 언어변화의 과정으로 판단하는 연구법이다. 둘째, ‘실제시간(real time)’ 연구법은 언어의 변화를 조사할 때 과거의 자료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하여 일정한 시간상의 거리를 두고 변화를 관찰할 때의 시간적 거리에 대한 개념이다. 예컨대, 20년 동안 어떤 언어공동체에서 진행된 언어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예전의 조사지역에서 동일한 조사 방법을 수행하는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¹²⁾

본 연구에서는 ‘실제시간’ 연구법을 활용하는데,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 조사된 방언 자료와 2000년대에 조사한 방언 자료를 대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수행한 대표적인 해외 사례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 국립국어연구소에서는 야마가타현(山形縣) 쓰루오카(鶴岡)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주기로 지금까지 네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차 조사가 1950년에 이루어졌고, 2차 조사는 1971년, 3차 조사는 1991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4차 조사는 2011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실제시간 대비법(real time contrast method)이라고 부른다.

상주 지역도 시간적 거리에 따른 언어변화 현상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실제시간’적 의의를 갖는 1980년대 조사 자료(1985년 조사)와 2000년대 조사 자료(2005년 조사)의 비교는 이전 시기의 음운 체계 및 언어변화까지도 추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동일한 현장

12) 이 방법은 현장시간에 의한 조사방법이 가지는 정확성 및 신뢰도 결여라는 약점을 보완해 준다.(방언연구회, 2001:250, 405)

([지도 2] A지역)에서 20년 전후의 비슷한 세대(60~7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언어변화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한다.

4. 선행연구

지금까지 상주 지역의 언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업적으로는 이상규(1988), 김한수(19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 김덕호(1992), 백두현(1994), 이장희(2002), 최명옥(2006) 등이 있다.

상주 방언에 대한 연구 중, 음운 관련 연구로는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통시적 음운 연구로는 이상규(1988), 백두현(1994), 이장희(2002) 등이 있고, 공시적 음운 연구로는 김한수(1988), 김덕호(1992), 최명옥(2006)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이장희(2002)는 상주 함창, 사벌 방언을 중심으로 음운변화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직접 조사와 제보자 조사를 통해 음운현상을 살피면서 해당 음운의 통시적 변화 양상까지 분석하여 통시적인 연구로도 의미가 있다.

최명옥(2006)은 상주 방언에 존재하는 음운동화 현상에 나타난 음운규칙을 밝혔다. 음운자질 분석부터 자음소동화, 모음소동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결과를 밝히고 있다.

또, 상주와 접경한 지역의 방언에 대한 언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물로서는 상주와 보은을 중심으로 한 음운 연구의 김덕호(1985), 충북과 경북 지역 간의 방언 경계에 대한 음운 현상을 밝힌 성석제(2004), 경북·충북 접경지역 방언의 어휘 분화 양상을 분류한 이상규(1999) 등이 있다.

이 지역 방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더불어 방언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기 위한 언어변화, 언어전파, 언어보존, 언어사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

은 다음과 같다.

강희숙(1994, 2001)은 전남 장흥, 광주 방언에서 나타나는 통시적 언어 변화의 잔존형과 차용형태의 공존으로 인한 언어변이와 언어보존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일정한 언어 사회에 공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언어변이의 유형은 시간적 차원에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개념을 사회학적 도시방언학(sociological urban dialectology) 연구 방법론으로 기술하고 있다.

김경숙(2014)에서는 약 100여 년에 이르는 현장시간의 의미를 갖는 두 조사 자료를 대비하여 방언의 음운론적 변이형의 지리적 분포와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문헌자료와 방언자료의 차이, 음운변화와 언어의 공간적 확산, 형태론적 층위에 따른 지리적 분포와 변화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김유범(2003)은 언어변화 이론을 유추(analogy)의 이론적 배경과 일반원리로 소개하면서 국어 문법사 연구에 적용하였다. 또한, 언어변화와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언어보존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장태진(1995)에서는 언어전파(language spread)와 언어사멸(language death)을 언급하며 지배언어와 소수 집단 단어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이론을 국내 방언의 사멸 문제에 대입하여 활력을 상실한 방언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II. 음운 변화

상주 방언의 음운 체계를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음운변화를 추출하여 설명할 것이다. 다음은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음운현상을 분류하여

기존에 연구된 내용과 1980년대의 음운 체계와 2000년대의 음운 체계의 변화 형태를 이 장에서 제시할 것이다.

상주 방언의 음운 체계에서 자음은 19개, 모음은 6개가 존재하고, 활음인 w와 y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으로 실현된다.

1. 자음 체계

이 방언의 자음은 ㅂ/p/, ㅃ/p', ㅍ/ph/, ㄷ/t/, ㄸ/t', ㅌ/th/, ㅈ/c/, ㅉ/c', ㅊ/ch/, ㅋ/k/, ㆁ/k', ㆁ/kh/, ㄴ/s/, ㄴ/s', ㄹ/m/, ㄹ/n/, ㅇ/ŋ/, ㅎ/h/, ㄹ/l/의 19개가 있다.

〈표 2〉 1980년대 자음 체계 〈표 3〉 2000년대 자음 체계

p	t	c	s	k	
p'	t'	c'	(s')	k'	
p ^h	t ^h	c ^h		k ^h	h
m	n			ŋ	
	l				

p	t	c	s	k	
p'	t'	c'	s'	k'	
p ^h	t ^h	c ^h		k ^h	h
m	n			ŋ	
	l				

- (1) ㄱ. 살(肉)[sal] : 쌀(米)[s'al]
 ㄴ. 서리(霜)[səri] : 씨레(農具)[s'ə:ri]
 ㄷ. 서라(立)[səral] : 씨라(點燈)[s'əra]

그런데 이 방언에는 경상 남부 방언에서 어두에서 구별되지 않는 /s/, /s'/의 변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징은 정철(1991:18), 김덕호(1992, 2001)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¹³⁾ 1980년대를 비

13) 김덕호(2001:138)에서는 /s'/변별 지역과 비변별 지역의 전이지역(transition area)을 김천, 구미, 고령, 칠곡, 군위, 의성, 영덕, 청송, 울진 지역으로 보았다. 그런데 /s'/의 후대 발생, 교육 및 대중 매체의 발달에 따라 /s'/가 확산되는 경향임을 고려하고 엄격

릇한 이전의 시기에는 현재의 자음체계에서의 /s/, /s'/의 변별이 혼란스러웠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에서 밝힌 조사 자료에서 어두에서 /s'/으로 실현되는 어형이 상당수 /s/으로 실현되어 혼란을 보였다. 이는 /s'/가 안동권 방언에서 17세기 후반에 등장하고 /s'/의 음운 사용 구획이 중부방언에서 남부방언으로 확산되어



[지도 3] 자음 체계

왔고, 이 지역이 /s/, /s'/가 변별되는 지역과 비변별되는 지역의 전이지역 (transition are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8세기까지는 자음체계에 /s'/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립 현상은 지역과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서북부방언에서 변별적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비변별적이다. 이 지역의 변화 형태는 충북 보은의 자음 체계가 동일한 형태로 /s/, /s'/의 변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 모음 체계

1) 단모음 체계

이 방언의 모음은 표준어의 단모음 체계에서 /e/, /ɛ/, /i/, /ə/가 중화되어 6모음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방언에서는 /e/와 /ɛ/가 /E/로 중화되고 /i/와 /ə/가 /ɪ/로 중화되었다. 중화를 거친 단모음 체계는 다음과 같다.

한 기준에 따라 본다면 전이지역은 사회 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훨씬 더 좁혀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하였다.

<표 4> 1980년대 모음 체계 <표 5> 2000년대 모음 체계¹⁴⁾

i		u
	ɛ	
E		o
	a	

i	i	u
E	(ə)	o
	a	

(2) <1980> /i, ɤ, u, o, E, a/



[지도 4] 모음체계

그런데, 2000년대 조사 결과 중에 ‘더덕’이 더덕[tɕɰdik]으로, ‘떠물’이 뜨물[tʰimul]과 같이 나타난 추이에서는 /i/와 /ə/의 변별이 모호한 결과가 발견되기도 하였지만, 본고의 IV장에서의 목적격 조사(-을/를), 보조사(-은/는)의 2000년대 조사 결과에서는 /i/와 /ə/를 변별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제보자의 변

별 능력일 수도 있을 것이며, 2000년대에 이른 시점의 문화적인 요인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3) <2000> /i, i, (ə), u, o, E, a/

그러나 충청방언과 접경지역인 경북 서북부 지역 방언에서는 7모음 체계를 가지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모음 체계를 가진 지역으로는 경북 예천 지역으로 밝혀져 상주 지역의 모음 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1980년대 충북 보은의 모음체계가 10단모음인데, /i/와 /ə/가 중화

14) 이 지역 방언에서는 /i/와 /ə/의 구분이 어려운 방언화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연구자 스스로도 판단되지만, 본 연구의 조사제보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모음 체계의 변화를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된 모음 체계의 상주 방언과 달리 변별된 모음 체계로 조사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상주 방언의 모음 체계에 보은 방언의 모음 체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2) 이중모음 체계

이 방언에서의 이중모음은 시대적 변화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중모음의 위치가 어두에 오는 경우와 어중에서의 실현형이 다르다.

우선 활음인 w와 y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데, w계 상승 이중모음으로는 /wE/, /wɛ/, /wa/, /wi/의 4개가 존재하고, y계 상승 이중모음은 /yE/, /yɛ/, /ya/, /yo/, /yu/의 5개가 존재한다.

‘와’는 자음 뒤에서 /a/로 실현되지만 어두에서는 /wa/로 실현된다.

- (4) ㄱ. 가:부[ka:bu]{과부} 하:루/하:리[ha:ru/ha:ri#]{화로}
- 한소[hanso]{황소}
- ㄴ. 왕[waŋ]

‘왜’와 ‘웨’는 /wE/나 /E/로 실현된다.

- (5) ㄱ. 갱매구[k'EŋmÉgu]{쟁과리} 때:지[t'E:ji#]{돼지}
- 애국[Éguk]{왜국} 한때[hEtt'E]{햇대}
- ㄴ. 웬닐[wE:nnyi:l]{웬일}

경북방언에는 [ö]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wE/로 실현된다. 그런데 자음 뒤에서 활음이 실현되지 않는 특성으로 [wE]도 [E]로 발음되는데 (5ㄱ)의 ‘돼지’는 ‘돼:지>때:지’와 같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현상을 보여 /E/로 실현되었다.

‘여’는 어두에서는 /yɾ/로, 자음 뒤에서는 /i/로 실현된다. 그 예는 (6ㄱ, ㄴ)와 같다.

- (6) ㄱ. 열[yɾ] 열-개/-되/-말[yɾlk'E/yɾt'E/yɾlmal]
 ㄴ. 비룩[píruk]{벼룩} 빙(세는 단위)[pín]{빙}
 뽕[p'íl]{뽕}

‘예’는 어두에서 /yE/로, 자음 뒤에서는 /E/로 나타난다.

- (7) ㄱ. 애쉬[Ésyin]{예순} 애:이/애:이[E:i/yE:i]{예의}
 ㄴ. 개:핵[kE:h*Ek]{계획}

‘야, 유, 요’는 어두에서 /ya/, /yu/, /yo/로 나타난다.

- (8) ㄱ. 얄:따[ya:lt'al]{얇다} 양념[yaŋnyim]
 ㄴ. 유리[yuri] 옷[yút]
 ㄷ. 요강[yogaŋ] 효자[hyo:ja]

3. 운소 체계

이 방언의 변별적 기능을 갖는 운소는 3개의 성조와 음장으로 구성된다. 음장과 함께 고저(高低)가 운소로 기능을 하는데, 음장은 장음(:)과 단음, 성조로는 고조(H), 저조(L), 상승조(R)로 구성된다. 이 방언에서 보이는 변별적 기능에 대해 1980년대와 2000년대 운소의 실현 양상을 대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9) ㄱ. <1980> 말(斗, L)[mal] : 말(馬, H)[mál] : 말(言, R)[ma:l]
 배(倍, R)[pE:] : 배(梨, H)[pÉ] : 배(腹, L)[pE]

ㄴ. <2000> 말(斗, R)[ma:l] : 말(馬, H)[mál] : 말(言, R)[ma:l]
 배(倍, R)[pE:] : 배(梨, H)[pÉ] : 배(腹, L)[pE]

(10) ㄱ. <1980>

말(斗)[mal]+이→마리[mari] 배(倍)[pE:]+가→배:가[pE:ga]
 말(馬)[mál]+이→마'리[mári] 배(梨)[pÉ]+가→배'가[pÉga]
 말(言)[ma:l]+이→마:리[ma:ri] 배(腹)[pE]+가→배가[pEga]

ㄴ. <2000>

말(斗)[mal]+이→마리[ma:ri] 배(倍)[pE:]+가→배:가[pE:ga]
 말(馬)[mál]+이→마'리[mári] 배(梨)[pÉ]+가→배'가[pÉga]
 말(言)[ma:l]+이→마:리[ma:ri] 배(腹)[pE]+가→배가[pEga]

오늘날 중부 방언권과 접경하는 상주 방언권에서는 세대에 따라 운소와 음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동부와 남부지역은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더 강했을 거라는 추정도 가능하다(이장희, 2002:15). 두 시대 간의 크게 상이한 결과는 없었지만, ‘말(斗)’만 단음에서 장음으로 변화된 결과를 보였음이 발견되었다. 경북 방언의 장음은 중부방언권의 경우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중부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장음이 중세국어의 상성이 변화된 형태로 경북 방언으로 침투하여 경북 방언의 성조체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경북 방언의 고저 운소와 중부 방언권의 장단 운소의 접촉으로 특이한 혼효 현상이 이 지역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김영만(1966:194)에서 경북방언과 중부방언을 비교할 때, 음장으로 구분되는 점은 같지만, 경북방언은 짧은 소리가 다시 고저로 구분되는데 비해 중부방언은 이러한 구분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김봉국(2006:162), 박경래(1998:36)에서



[지도 5] 운소체계

도 중부방언은 음장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변별기능이 뚜렷하다고 설명되고 있다.

4. 음운 변동

1)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전설고모음성에 의해 선행 비구개음이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의 통시적 현상 중에서도 /k/ > /č/와 같은 변화형만 살펴보겠다. ‘ㄱ’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인접한 중부 방언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ㄱ’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에서는 예외 없이 발생되지만, 충북 방언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갖춘 조건에서 모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휘에 따라 수의적이다.

- (11) ㄱ. 기침: <1980> 기침[kičim]
 <2000> 지'침[čičim]
 ㄴ. 김(海苔): <1980> 김[ki:m], 짐[či:m]
 <2000> 지심[čisim]
 ㄷ. 엿기름: <1980> 엿기름[yɛk'irɕ'm]
 <2000> 열쩔'꿈[yɛtč'ilgúm]

(11ㄱ)은 ‘기침’이 2000년대에 이르러 상주 지역에서는 ‘지침’과 같이 ‘ㄱ’구개음화로 변화된 형태를 보였다. (11ㄴ)은 ‘김’이 1980년대에는 표준어형인 ‘김’과 ‘ㄱ’구개음화를 거친 ‘짐’이 동시에 발견되었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심’이라는 새로운 어형이 조사되었다. 김덕호(1985:51)에서는 이 어휘형에 대해 전이지역에서 ‘기심[kisim]’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어휘형은 융합방언의 전형적인 예로 보여 진다.

(11ㄷ)도 1980년대에는 표준어형인 ‘옛기름’에서 어중 ‘ㄱ’이 경음화되어 ‘옛끼름’으로 조사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옛질곰’과 같은 발화형으로 조사되었는데 수의적인 방언형 어휘로 판단된다. 충북방언의 ‘옛끼름’에 대해 경북방언에서는 ‘옛질곰’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옛끼름’은 ‘옛+기르+ㄹ’의 합성어, ‘옛질곰’은 ‘옛+질+ㄹ+구+ㄹ’의 합성어로 분석된다. ‘질구다’는 ‘ㄱ’구개음화형과 사동접사 ‘-구-’의 결합으로 사동사로 파생된 결과이다.



[지도 6] 구개음화

2) ‘ㅣ’모음 역행동화

‘ㅣ’모음 역행동화는 선행음절의 모음이 후행음절의 전설모음의 영향으로 동화되는 음운현상이다. 상주 방언에서 이 음운현상은 통시적 변화가 분명한 편은 아니었지만, 다른 방언에서 나타난 음운현상과 비교했을 때, 상주 방언에서 두드러지는 음운현상은 분명하다. 1980년대 조사 자료에서 해당 음운현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12) ㄱ. 장끼: <1980> 쟁끼[čĕŋkʰi#]

<2000> 쟁'끼[čĕŋkʰi#], 장'끼[čaŋkʰi#]

ㄴ. 정강이: <1980> 쟁강이[čĕŋgEŋi#]

<2000> (마른)쟁'강이[čĕŋgEŋi#]

ㄷ. 두드러기: <1980> 두디리기[túdirigi#]

<2000> 두디리'기[túdiri'gi#], 두'더레기[túđŕEgi#]

ㄹ. 잠꾸러기: <1980> 잠꾸러기[čamkʰurŕgi#]

<2000> 잠꾸레기[čamkʰure'gi#]

(12ㄱ)는 표준형 ‘장끼’가 1980년대, 2000년대 두 시기 모두에서 후행하는 음절의 ‘ㅣ’의 영향으로 ‘ㅈ’가 ‘ㅊ’로 변화되었다. 이는 통시적인 변화는 아니고, 2000년대에는 표준어형인 ‘장끼’도 함께 조사된 것으로 보아 수의적 변화 형태로 판단된다.



[지도 7] 'ㅣ'모음 역행동화

(12ㄴ)도 경년간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선행음절의 ‘ㅈ’가 후행하는 ‘ㅣ’의 영향으로 ‘ㅊ’로 변화되었다. 이 어휘형도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주 방언으로서 해당 음운현상을 보인 변별적인 어휘형이다.

(12ㄷ)은 두 시대 모두 ‘두드리기’와 같은 어형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르러 ‘두드레기’와 같은 새로운 어휘형이 나타났다. /ə/가 /i/로 고모음화되어 실현된 것은 충청방언의 특징으로 설명된다. 접경지역의 영향으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12ㄹ)에서는 통시적 변화를 보인 예인데, 2000년대 방언형에서 선행음절의 ‘ㅈ’가 후행하는 ‘ㅣ’의 영향으로 ‘ㅊ’로 변화된 형태로 조사되었다.

3) 경음화

이 방언에서 자음의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합성어를 이루는 단어의 결합은 물론이고 곡용과 활용 과정에서 그 예는 흔히 발견된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방언 조사 결과만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어휘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합성어에서 경음화되어 나타난 어형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3) ㄱ. 다듬이+돌: <1980> 따디'미똥:[t'adimit'o:ɿ]

이 음운현상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추된 합성어와 파생어에서의 방언 차이는 이상규(1999:225)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어기나 접사에 의한 것이며, 합성어와 파생어가 구성되는 방식의 유형 차이가 생기는 요인도 음운·형태·의미 등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성을 맺는다고 보았다. 특히 경북·충북 접경지역의 합성어와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구성 방식¹⁵⁾에 의한 예들을 중심으로 조어 방식을 분류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그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Ⅲ. 어휘 변화

어휘 연구는 언중들의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가장 큰 언어적 요소일 것이다. 방언의 어휘분화는 음운·형태·의미와 같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이상규, 1999:219). 나상배(2002:2-3)에서는 어휘에서 언어와 문화 간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데, 언중들이 어휘를 만들어내는 심리로부터 해당 민족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파머(L. R. Palmer)가 “언어와 문화의 역사는 상호보완적으로 서로를 계발시키며 진행된다.”라는 설명으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정리하며 언중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어휘 체계의 언어문화적 해석상의 중요성에 이론적 설명을 덧붙인다. 따라

15) 이상규(1999)의 ‘제2편 방언에 관한 연구-제2장 경북·충북 접경지역어의 어휘분화’에서 어휘의 조어유형을

- (1) 합성어 구성 대 파생어 구성에 의한 방언 차이
- (2) 단일어 대 파생어 구성에 의한 방언 차이
- (3) 합성어간의 구성 차이에 의한 방언 분화
- (4) 파생어 구성 차이에 의한 어휘 분화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바 있다.

서 조사 제보자들의 직업이나 학력에 따른 사용 어휘가 상이할 것이고 주민들의 언어사용 환경이 시공간적 변화를 통해 변화된 형태의 결과를 보일 것이다. 1980년대 어휘는 『한국방언자료집Ⅶ - 경상북도편』에서 상주 방언 자료와 2000년대 상주 방언형 중, 형태적인 변화가 뚜렷한 어휘를 추출한 후 상주와 접경지역인 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 김천과 충북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1980년대 어휘가 2000년대 상주 방언형과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접경지역에서 상주 지역으로 유입되었다고 보아 어휘 변화형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1. 농업 관련 어휘

본 장에서 농업 관련 어휘를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상주를 비롯한 경북·충북 지역 일대가 우리 민중들이 논과 밭을 일구어 낸 농경생활의 삶의 터전이자 주요 언어사용 배경이 되므로 농업 관련 어휘 연구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관련 연구로 김응모(2006)가 한국어 농업 어휘 낱말밭을 체계화하여 농업 어휘의 분류 체계에 기여하였는데, 농업 관련 어휘를 농사 활동에 관련된 곡식, 각종 농작물, 농기구 등으로 분류하여 어휘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다양한 산업이 발달된 근대 사회의 발전과정 이전에도 농경사회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언어공동체의 세계관이 농경사회에 기저가 있음을 고려하면 방언 어휘 연구에서의 농업 관련 어휘는 불가피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1) ‘볍씨’와 ‘나락씨’

표준어 ‘볍씨’가 상주 지역에서 1980년대에 ‘종자’, ‘나락씨’로 쓰이던 것이 2000년대에는 ‘햅시’형으로 나타났다. 이 변화 형태는 한 지역 내에서의

변화 현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이 아닌 경북 지역의 전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존방언의 양상을 보인다. 이 어휘는 1980년대 상주 지역에서 쓰이던 ‘종자’, ‘나락씨’가 동시대에 경북 문경, 예천, 의성, 충북 보은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상주에서 나타난 개신 형은 1980년대 괴산 지역의 방언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주와 북서쪽의 인접지역에서 이러한 언어 전이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도 보여 진



[지도 9] 법씨

다. 또, 2000년대 새롭게 출현한 ‘씨알’은 그 자체가 ‘법씨’를 지칭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사제보자가 ‘씨알’을 곡식의 낱알의 개념을 인식한 개념의 차원에서 사용한 어휘형으로 추측된다. 이 어형은 조사제보자가 유년기에 인식한 어휘형을 발화습관에 의해 방언형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표 6〉 ‘법씨’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법씨	종자(나락씨)	씨알 뽕시'

2) ‘보릿겨’와 ‘버리당개’



[지도 10] 보릿겨

보리를 찧었을 때 나오는 등겨를 의미하는 ‘보릿겨’는 상주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1980년대, 2000년대의 방언형이 모두 개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리’를 1980년대에는 ‘버리’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표준어형인 ‘보리’로 발화되었는데, 이 ‘보리’의 예는 김덕호·김명주(2012:97)

에서 성주 방언의 1980년대, 2000년대 어형을 밝혀 비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보리’의 ‘보리’와 ‘버리’의 실현형이 시대와 지역을 아울러 모두 나타났는데, 상주 지역 방언의 변화 형태가 최근에는 표준어형의 영향으로 이전 시기의 방언형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변 경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버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리’형과 ‘버리’형은 /pori/와 /pɔ̃ri/로 분석된다면 단순 음운변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어휘형태적 측면으로 분류하겠다.

이렇게 시간과 지역의 상관성을 막론하고 ‘보릿겨’의 어휘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2000년대 상주 방언에서 변화된 어형은 유일하게 1980년대 영동 지역에서만 똑같은 어형이 나타난 것으로 발견되어 그 관계를 보였다. 한편 변화되기 이전의 어형은 문경 지역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 개신파의 흐름이 엿보인다.

〈표 7〉 ‘보릿겨’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보릿겨	버리당개	보리땅'기

3) ‘쟁기’와 ‘흑씨’

현재 농기구 ‘쟁기’는 표준어형이나 방언형 할 것 없이 ‘쟁기’형 그대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는 ‘흑씨’와 같이 쓰이다가 현재와 같이 ‘쟁기’로 변화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 형태가 상주를 둘러싼 9개 지역(경북 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충북 괴산·보은·옥천)에서 의성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 11] 쟁기

‘쟁기’형이 나타나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 어휘형이다. 1980년대에 사용되었던 구형인 ‘흑찌’는 ‘흙+쟁기’에서 분화된 것으로 추정되며¹⁶⁾ ‘흙’에 대한 변이형이 ‘흑[huk]’으로 나타났다가 동시대에 표준어형인 ‘쟁기’형이 신형으로 나타나면서 의성 지역을 제외한 모든 접경 지역에서 나타난 어형이다. 단순한 언어 전이현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표준어형 ‘쟁기’의 확산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표 8〉 ‘쟁기’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쟁기	흑찌>쟁'기	쟁'기

4) ‘삽’과 ‘수금포’



[지도 12] 삽

‘삽’은 1980년대에 ‘삭까래’, ‘수금포’로 사용되었다. 이들은 개별 형태의 어형으로 존재하였지만, 2000년대의 단어형은 상주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서 각각 조금씩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사용되었던 ‘삭까래’는 2000년대 상주에서 그 어형이 사라지고 표준어형인 ‘삽’과 ‘수금포’가 ‘수금포’로 통용되었다.

이는 1980년대의 구미(선산), 김천(금릉)지역에서도 조사된 어형이다.(←) 1980년대 상주에서 두 가지 형태로 쓰였던 방언형은 2000년대에 다른 경북 지역에서 각각 ‘삭까래’, ‘수금포’ 등으로 발화된 점으로 보아 개신파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2007:107)

있었다.¹⁷⁾ 또 2000년대 자료에서도 그 분포가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치에 대한 어휘형은 특히 식재료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조사제보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김치’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김치	김치, 집치	김'치, 짬'자:(+구)

2) ‘송늑’과 ‘송녕’



[지도 14] 송늑

‘송늑’은 한자 본음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변형시킨 한자음을 취한 어휘형이다.¹⁸⁾ 우리 민족의 구수한 심성이 담겨있는 듯한 노르스름한 빛깔의 누룽지를 우려낸 물로 친숙한 ‘송늑’은 천소영(2005:115)에서 ‘송녕’이 익힌 물(니근물) 또는 ‘찬물’(冷水)이 식은 물이라는 뜻이지만 밥을 푼 솥에 물을 부어 끓인 뒤 다시 식혔다는 뜻이거나 찬물을 익혔다는 뜻으로 붙여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송늑’의 어원은 한자어 熟冷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말은 ‘숙녕>송녕>송늑>송녕’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상주 지역에서 ‘송녕’으로 나타난 방언형이 1980년대에 경북 문경, 예천, 구미(선산)와 충북 영동 지역에서도 똑같은 어휘형이 나타났는데, 이 방언형이 2000년대 상주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17) 김덕호(2012:307)에서 김치 명칭의 ‘짬지’형을 비롯한 ‘지’형, ‘집치’형, ‘김치’형에 대하여 분포 변화를 고찰한 바 있다.

18) 천소영(2005:35)에서 고유한 한자어에서 변형되어 사용된 어휘형에 대해 설명하였다.

〈표 11〉 ‘송농’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송농	송녕	송'냥

3) ‘식혜’와 ‘단술’

‘식혜’를 흔히 방언사용 지역에서는 ‘감주, 단술’형이 통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상주 지역의 변화 형태는 1980년대에 ‘감주’로만 쓰이던 방언형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감주, 단술, 숙혜’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0년대에 쓰이던 방언형이 2000년대에 영향을 끼친 변화과정으로 가장 변별적인 어휘형인 ‘단술’



[지도 15] 식혜

이 경북 문경, 의성과 충북 보은, 옥천, 영동에서 1980년대에 나타나 2000년대 상주에 영향을 주어 방언형이 변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12〉 ‘식혜’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식혜	감주	감'주, 단술', 숙'혜

4) ‘튀밥’과 ‘박상’

쌀이나 옥수수를 튀긴 것을 이르는 ‘튀밥’도 방언형으로 쓰일 때에는 다양한 비표준적 방언형으로 쓰인다. 2000년대 상주 지역에서 ‘튀밥’의 형태로, 앞선 1980년대에는 ‘튀베기, 박상’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에 따라서 경북 의성, 김천(금릉), 충북 괴산 등지에서는 ‘쌀+튀밥(쌀+튀밥)’과 같은 합성어 형태로도 조사되었다. 그런데 ‘튀밥’의 방언형이 조사제보자의 발화 습관에 따른 실현형으로 판단된다. 전철웅(1998:66)에서는 ‘튀밥’의 충북



[지도 16] 튀밥

방언에서는 ‘튀’가 중세국어 ‘튀’에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pthuypap>thuypap>thüpap>thipap’과 같이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다. 2000년대 조사된 상주의 ‘티밥’형은 1980년대 경북 문경, 예천과 충북 영동에서 발견되었다.

〈표 13〉 ‘튀밥’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튀밥	튀베기, 박상	티'밥

IV. 문법 요소의 변화

어느 언어 체계에서건 문법 영역이 가장 형식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구어적인 성격의 방언 조사 결과물은 변화의 정도가 적고 그 속도도 느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를 보인 몇 가지의 문법 현상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조사, 종결어미, 보조용언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조사

경북 방언의 조사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를 포함하여 경북 지역에서만 실현되는 독특한 형태들이 다양하다. 특히 하위 방언권으로 갈수록 각 형태에 대한 다양한 변이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문법적 기능의 차이는 아닌 단지 형태나 음운적인 차이로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모음에서 차이를 보인

다. /e/, /ɛ/는 /E/로, /ə/, /i/는 /ɜ/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1)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함께 체언의 기능을 제한하는 문법 범주이다. 그렇지만 구어 자료인 방언 조사 결과물에서는 조사에 대한 기능이 약화된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해당 조사를 발화할 때 사용되는 조사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목적격 조사 ‘-을



[지도 17] 목적격 조사(을/를)

/를’이 1980년대에는 ‘-얼/렬’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 폭넓은 자료에서 발견되었고, 2000년대에는 ‘-을/를’로 정확한 형태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보자들의 교육 수준이 1980년대에 비해 높아진 점과 방송 매체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중부방언형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 결과 /i/와 /ə/를 변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14) ㄱ. <1980> 무렬{물을}, 대지렬{돼지를}, 동상얼{동생을}

ㄴ. <2000> 코를{코를}, 무를{물을}

〈표 14〉 ‘-을/를’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을/를	무렬[murɐl], 대지렬[tɛʝirɐl], 동상얼[tɔŋsʌŋɐl]	무를[muril], 코를[kʰɔril]

2) 보조사

보조사 ‘-는’은 1980년대에 ‘-넌’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느’으로 발음



[지도 18] 보조사

된다. 이 역시도 목적격조사 ‘-을/를’과 같이 교 육의 확대와 매체의 영향으로 ‘-’와 ‘-’를 변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나 타난 변화로 보여 진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도 충북 보은, 옥천, 영동 지역에서는 ‘나는, 팔은’ 과 같은 형태가 조사되어 2000년대 상주 지역의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 (15) ㄱ. <1980> 나넌{나는}, 버리넌{보리는}, 팔언{팔은}
 ㄴ. <2000> 나는{나는}, 보리는{보리는}, 팔은{팔은}

〈표 15〉 ‘-은/는’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은/는	나넌[nánɕn], 버리넌[pɕrínɕn], 팔언[pʰaɕɕn]	나’는[nánin], 보리는[porínin], 팔은[pʰaɕɕin]

2. 종결어미

본 장에서는 이 방언에서 나타난 종결어미 중에서도 의문형·명령형 종 결어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다른 의미와 형태로 쓰였지 만 종결어미 ‘-아’와 ‘-나’의 쓰임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어’형이 상주를 포함한 경북 서북부 지역 일부에서 쓰이기도 한다(이기갑, 2003:272). 이는 이 방언에서 많이 쓰이는 ‘-(어)여’형이 ‘-아/어’보다는 높임 등급이 높지만 ‘-(어)요’보다는 낮은 등급을 나타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 의문형

이 방언의 의문형 종결어미는 아주낮춤으로 ‘-나’형, 예사낮춤의 종결어

미로는 ‘-가’와 예사높임의 ‘-까’가 쓰였다.

(16) ㄱ. <1980> 비 마이 와여? {비 많이 와?}

ㄴ. <2000> 비 마이 오나? {비 많이 와?}

(16)은 종결어미 ‘-아’의 방언형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쓰임과 동시에, 상주 방언에서도 경북 서북부 지역 방언에서 특징적인 종결어미의 쓰임에 대한 예로 1980년대의 용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현재의 방언사용 직관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사례로 1980년대에는 상주를 포함한 경북 일부 지역에서 ‘와?’와 같은 반말의 종결어



[지도 19] 의문형 종결어미

미를 ‘와여?’와 같이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한 이기갑(2003)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는 부분이지만, 한편 이상규(2000)의 『경북방언사전』에서는 ‘-어여’의 쓰임을 높임의 종결어미의 뜻으로 풀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결어미는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나?’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

〈표 16〉 ‘-아’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아 (와?)	와여[wayɾ]	오나[ona]

(17) ㄱ. <1980> 비 마이 오녕가? {비 많이 오나?}

ㄴ. <2000> 비 마이 오능가? {비 많이 오나?}

(17)은 예사낮춤의 의문형 종결어미로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조사된

결과이다. 이 조사 결과는 김덕호·김명주(2012)에서 밝힌 성주 방언의 종결어미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예사낮춤의 종결어미로 ‘-가’가 공통적으로 쓰였지만, 인접한 옥천, 영동 지역에서 ‘-오능가?’ 형으로 실현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개신파가 최근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표 17〉 ‘-나’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나 (오-나?)	오녕가[onɳŋgal], 와여[wayɳ]	오능가[onɳŋgal]

(18) ㄱ. <1980> 비 마이 옴니까? {비 많이 와요?}

ㄴ. <2000> 비 마이 옴니까? {비 많이 와요?}

예사높임의 종결어미는 (18)과 같이 변화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따로 변화과정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2) 명령형



[지도 20] 명령형 종결어미

명령형 종결어미도 앞서 살펴본 의문형 종결어미와 같이 1980년대에는 ‘-여’형이 나타나 표면적으로 형태에 차이가 분명하지 않지만 통시적인 변화는 분명한 결과로 나타났다.

(19) ㄱ. <1980> 앉아여{앉아}, 앉아여{앉아요}

ㄴ. <2000> 앉아라{앉아}

(19)에서 1980년대에 높임의 등급에 관계없이 ‘앉아여’형태로 쓰이던 것이 2000년대에는 ‘앉아라’와 같이 발화되었다. 같은 의미의 ‘앉아’의 명령형

종결어미가 방언의 억양이나 성조 때문에 명령형과 같은 어투의 ‘해라체’로 느껴지는 어투이다. 이 형태가 1980년대 경북 의성, 구미(선산), 김천(금릉) 지역에서 똑같은 형태로 조사되어 이후 상주 방언에 영향을 주었다.

〈표 18〉 ‘-아’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아 (앉-아)	앉아여[ánjayɿ]	앉아라[ánjara]

3. 보조용언

1) -버리다

보조용언 ‘-버리다’의 경우 동사 ‘버리(捨)-’에서 비롯되어 본용언이 항상 동사이어야 하는 통사적 제약이 있다. 이 용언이 방언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1980년대에는 ‘빠리다’로 나타났던 것이 2000년대에는 ‘빼리다’, ‘버리다’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경지역의 방언형을 살펴보았을 때, 1980년대 충북 괴산, 영동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발견되어 2000년대 이전에 개신파가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지도 21] 보조용언 ‘-버리다’

- (20) ㄱ. <1980> 빠리다(버리다), 빠렸다(버렸다), 빠리라(버려라)
 ㄴ. <2000> 빼리다, 버린다(버리다)

〈표 19〉 ‘-버리다’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버리다	빠린다[p'irinda]	빠린다[p'ərinda] 버린다[pərinda]

2) -는가/나 보다

추측, 추정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보조용언 ‘-는가/나 보다’는 상주 지역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 형태로 보기는 어렵지만, 충북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은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는가/나 보다’가 ‘-(으)ㄴ가/나 부다’형으로 나타났고, ‘-(으)ㄴ개 비다’형이 쓰인다. 또 여기서 /ㅣ/가 탈락한 ‘-(으)ㄴ갑다’형이 2000년에도 쓰였다. 이 형태는 통시적 변화형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접경한 지역들과의 유사 어형을 보이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지역은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은 변화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지도로 변화과정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21) ㄱ. <1980> 고풀 갑따(고픈가 보다), 산녕가 보다(쌌는가 보다)

ㄴ. <2000> 올랑 갑따, 올랑가 보다(오려는가 보다)

자는 갑따(자는가 보다), 추운 갑따(추운가 보다)

〈표 20〉 ‘-는가/나 보다’의 1980년대-2000년대 상주 지역 방언형

표준어(표제어)	1980년대 상주	2000년대 상주
-는가/ 나 보다	고풍갑따[kopʰʌŋgapt'a] 산녕가보다[sannɯŋgaboda]	올랑갑따[ollanggapt'a] /올랑가보다[ollangaboda] 자는갑따[janɯŋgapt'a] 추운갑따[ɕʰuŋgapt'a]

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상주 지역의 20년에 걸친 언어변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상주 지역은 경상북도 지역으로서 현재도 분명 경북 방언의 특색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지만 충청북도와 접경한 지리적인 환경과 그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인 특색이 언어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음운체계에서는 자음 19개, 모음은 18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8개였던 모음이 /e/와 /ɛ/가 /E/로 중화되고 /i/와 /a/가 /ɤ/로 중화되어 6개의 단모음 체계로 변화되었고, 9개의 이중모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음 체계에서는 1980년대에는 어려웠던 /s/과 /s'/의 변별이 2000년대에는 /s'/ 변별이 분명한 개신파가 영향을 끼친 변화로 보인다. 이는 17세기 이후 중부방언과 접촉된 방언의 특성이 확산되어 17세기 이래 중부방언의 영향이 경북 상주 지역 내까지 영향을 미쳐 /s'/의 유무로 자음 체계의 변화된 특징으로 나타났다.

모음 체계에서는 /e/와 /ɛ/가 /E/로 중화되고 /i/와 /a/가 /ɤ/로 중화되어 6모음 체계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상주지역 모음 체계는 충청방언과 접경지역인 경북 서북부 지역으로서 7모음 체계를 가지기도 한다는 특색을 도출하였다.

셋째, 어휘형의 변화 형태는 농업 관련 어휘와 음식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농업 관련 어휘로는 ‘뽕썰’, ‘보려겨’, ‘쟁기’, ‘삽’, 음식 관련 어휘로는 ‘김치’, ‘송늬’, ‘식혜’, ‘튀밥’의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상주 방언의 어휘형의 변화 형태를 분석한 후, 이후 접경한 경북 문경, 예천, 의성, 구미(선산), 김천(금릉)과 충북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지역의 1980년대 어휘형이 2000년대 상주 방언의 어휘형과 일치하는 경우의 어휘형만 추출한

것이다. 이러한 어휘 변화의 양상은 모두 접경지역의 영향으로 변화된 어형만 분석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주의 지리적인 환경을 언어 변화의 뚜렷한 기제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문법 요소의 변화로는 크게 조사와 종결어미와 보조용언으로 분류하여서 조사 중에서는 목적격조사, 보조사, 종결어미로는 의문형, 명령형 종결어미 ‘-아’, ‘-나’형을, 보조용언으로는 ‘-버리다’, ‘-는가/나 보다’에서의 변화형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추이 양상은 20년 전후의 방언 화자들이 다르게 사용하는 방언을 통해 방언의 변화, 전파, 보존, 사멸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처럼 실재시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이렇게 주기적인 언어변화를 탐색하는 연구 방법이 언어문화적인 접근 방법으로써 방언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 「음운 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언어의 변화와 보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광주 방언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47호, 2001, pp.537-564.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낙동강 유역의 사람들과 문화』, 도서출판 역락, 2007, p.107.
- 김경숙, 「한국 방언의 지리적 분포와 변화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덕호, 「경북 충북 접경지역어의 음운연구 -특히 상주-보은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_____, 「경북 상주지역어의 음운 연구」, 『문학과 언어』13, 1992, pp.29-50.
- _____, 『경북방언의 언어지리학』, 월인, 2001, p.138.
- _____, 「한반도 ‘김치’ 명칭의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 『방언학』 제16호, 2012, pp.287-326.
- _____, 김명주, 「경북 성주지역의 언어 추이에 대한 연구」, 『영남학』 제21권, 2012, pp.79-121.
- _____, 「방언 분포의 변화 과정에 대한 지리·사회·문화적 분석 방안」, 한국사회언어학회 2015년 공동학술대회, 2015, pp.67-90.
- 김봉국, 「경기도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6, pp.159-188.
- 김영만, 「방점과 현대 국어 성조의 비교 -경북 방언을 중심으로-」, 『한글』 제137호, 1966, pp.192-207.
- 김유범, 「언어 변화 이론과 국어 문법사 연구」, 『국어학』 제43호, 2004, pp.429-460.
- 김운한, 「언어변화의 일반이론」, 『언어학』 제16호, 1995, pp.267-293.
- 김응모, 『한국어 농업어휘 낱말발』, 박이정, 2006.
- 김지숙·홍기옥, 「김치 관련 명칭 연구-경북과 경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4집, 2009, pp.131-165.
- 김택규, 『한국농정세시의 연구 - 농정의례의 문화인류학적 고찰』,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pp.445-470.
- 김한수, 「경북 상주방언의 음운론적 특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나상배, 『언어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pp.2-3.

- 민원식, 『경북 북부 방언의 격어미에 대하여』, 어문연구학회, 語文研究, 1986, pp.43-57.
- 박경래, 『중부 방언』, 『새국어생활』 제8권 제4호, 1998, pp.31-50.
- 방언연구회, 『방언학 사전』, 태학사, 2001, p.250, 405.
- 백두현, 『경상방언의 통시적 연구 성과와 그 전망』, 『인문과학』10,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 성석제, 『충북과 경북 지역 간의 방언 경계에 대하여 -몇몇 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기갑,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2003, p.272.
- 이동화, 『경북방언의 축약현상』, 한민족어문학회 제15호, 1988, pp.247-257.
- 이상규, 『서북, 경북 방언의 통시음운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_____, 『경북방언 문법연구』, 박이정, 1999, pp.219-236.
- _____, 『경북방언사전』, 태학사, 2000.
- _____, 『국어방언학』, 학연사, 2004.
- 이승녕 외, 『한국방언사』, 『한국문학사대계』 V, 1967.
- 이장희, 『상주 지역어의 음운 변화』, 영남학 7권, 2002, pp.7-29.
- 장태진, 『우리말 언어 보존의 한 유형』, 국어학 제25호, 1995, pp.199-219.
- 전인득, 『경북 상주 방언의 활용어미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전철웅, 『충북방언의 역사적 연구』, 도서출판 보고서, 1998, p.66.
- 정 철, 『경북지방의 언어축약』, 어문론총 제13호, 1980, pp.31-51.
- 조현준, 『경북 방언의 격조사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천소영, 『한국어와 한국문화』, 우리책, 2005, p.35-115.
- 천시권, 『경상북도의 방언구획』, 『어문학』13, 한국어문학회, 1965.
- 최명옥, 『경북 상주지역어의 음운동화 연구』, 『관악어문연구』31권, 2006, pp.177-199.
- 최학근, 『어중자음군현상』, 국어방언연구 국어학논문선 6-방언, 196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III - 충청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VII - 경상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小倉進平, 이진호 역, 『한국어 방언 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 Labov, W., 『Sociolinguistic Pattern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2.
- _____,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Blackwell, 1994.
- Linn, Michael D., 『Handbook of Dialects and Language Variation』, Academic Press, 1998.

Abstract

The Study of the Language Changes on Sangju in Gyeongbuk

Park, Ji-Su · Kim, Deok-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a of the linguistic change on Sangju in Gyeongbuk. Sangju has become in contact with Gyeongsangbuk-do, Chungcheongbuk-do, and the area adjacent to the Sobaeksanmaek, where is located in a center, as a strategic point of traffic passing through between Nakdong-River and a railroad. From the various regions, the local language and culture have been under the influence of the surrounding areas.

Therefore, this research is the result of analyzing vocabularies and their features over the specific phenomena of grammar from 1980's to 2000's in Sangju province, which mean the linguistic change of the dialect in Sangju.

Key Word : Sangju Dialect, Language change, Real time, Changes in the phonological system, Aspects of lexical change, Change of grammatical elements.

박지수

소속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 blossom_s936@daum.net

김덕호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번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 053-950-5115

전자우편 : idhkim@knu.ac.kr

이 논문은 2015년 2월 28일 투고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